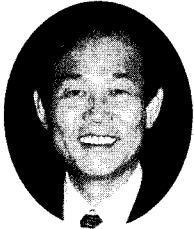


서로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

# 성(性)의 진정한 의미



김 원 회 | 대한성학회 회장

성(性)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성은 무엇보다 가치에 의한 것이다. 성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진정한 성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신뢰를 쌓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性)은 가치에서부터 출발

성을 단순히 '암수의 생리적 차이'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는 성을 무엇보다 가치로 이해한다.

인간의 성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가치, 욕구, 능력으로 그 중 가치가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가치는 그가 속해있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만을 고집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 성(性)은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성은 인격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이성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성이다. 애정없이 이루는 성은 결국 추억 속에 나쁜 앙금으로만 남을 뿐이

다. 성은 서로 호의적인 남녀간의 제 삼의 언어이며 가장 좋은 사교방법이다.

그 속에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오르가즘보다도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기도 한다.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뇌다. 뇌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 감대인데 이는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성적 행위가 환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은 남녀의 성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와 행동이다. 그리고 성행동은 성적 긴장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만족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복잡한 행동과학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 문화적 바탕을 배경으로 가치관, 경험, 학습된 내용 등 다양하지만 육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흔히 성격차이를 들지만 원래 남녀 사이에는 성차가 크기 때문에 성격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옳지 않다.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공통분모에 있어서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헤어지거나 새 삶을 산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 사랑은 친밀감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

부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보다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사랑에 대한 참 의미를 표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사랑은 우선 성립이 중요하겠지만 그 후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탐색기간으로 대부분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어 상대의 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지만 일단 반려자로 결정이 되면 느끼는 애정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며 상대를 이성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예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친밀감이나 사랑이 더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정열적인 사랑'으로부터 반려자적인 사랑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숙된 관계가 있어야 백년해로가 가능한 것이다.

스틴버그는 사랑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친밀감, 정열, 이성이 정삼각형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친밀감은 상호이해, 결속, 아낌없이 주는 마음, 상대방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이며, 정열은 육체적인 매력, 성적관계, 로맨스 같은 것이고 이성은 관계를 설정하는 결정력으로 결혼생활을 위해 서로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랑은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갖추고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중 두 가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친밀감만이나 이성만으로 유지되는 사랑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녀는 꼭 깊이 생각할 일이다. 사랑은 계속 분화되고 변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성에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한다. 그러면 불행한 성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성행동을 오르가즘을 위해 전진하는 '목표 설정형'으로 이해하거나 '성적 만족형'으로 무조건 자기만족을 얻으려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오르가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친밀감을 얻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보람있는 것이다. 또한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형태도 없다. 성은 정신적인 측면이 훨씬 강조되는 인간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